



COP28 UAE

COP28 결과 공유 및 대응전략



COP28 주요결과와 과제

김효은 기후변화대사
외교부



외교부

Ministry of Foreign Affairs

두바이 제28차 기후변화총회

(COP28) 주요결과와 과제

기후위기시대 - 국제공조 가능한가?

김효은

기후변화대사


COP28 : 11.30(목)~12.1~~2~~3(수) 두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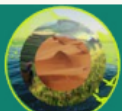


11.30.(목)	12.1(금) ~ 2(토)	12.3(일) ~ 12(화)	12.9.(토) ~ 10.(일)	12.13(수)
개회식	정상회의 정상연설, 라운드테이블	UN기후협상 회의 산하기구 회의	장관급 회의	폐회식 (예정시한 하루 초과)
비공식 협상 회의, 각종 부대행사 등 병행				


TWO WEEK SCHEDULE

Nov 30  Opening Day


Dec 1  World Climate Action Summit


Dec 2  World Climate Action Summit


Dec 3  Health / Relief, Recovery and Peace


Dec 4  Finance / Trade / Gender Equality / Accountability


Dec 5  Energy and Industry / Just Transition / Indigenous Peoples

Dec 6  Multilevel Action, Urbanization and Built Environment/Transport

Dec 7  Day of Rest

Dec 8  Youth, Children, Education and Skills

Dec 9  Nature, Land Use, and Oceans

Dec 10  Food, Agriculture and Water

Dec 10-11  Final Negotiations

CROSS-CUTTING THEMES

Technology and innovation



Inclusion



Frontline communities



Finance



- COP 28 이 직면한 국제 상황 : 도전과 기회 혼재
 - 대립과 분쟁의 격화 : 우크라이나 전쟁 ,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, 미-중간 긴장관계 지속 등 다자협력의 위기
 - ✓ 미-중 Sunnylands Statement (11.14) : 재생에너지, 메탄감축, CCUS등 합의 - 두바이 기후변화총회에 서광
 -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,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등 일방조치에 대한 개도국 반감 증대
 - COP 28의장국 UAE(화석연료 생산국) 리더십에 대한 의심 상존
 - 기후재난(홍수, 폭염, 산불 등) 빈번 → 글로벌 경각심 고조
 - 탄소중립을 향한 기업, 금융의 태세 전환 : 기술개발, 혁신 등

■ COP28 주요 성과 : 역대 최대 규모의 COP

- ✓ 범세계 리더들의 관심 집중 : 160여개국 정상 참석
- ✓ 9만여명 등록, 역대 최대 규모의 COP으로 기록
- ✓ 개막식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방식 합의, 총 7.8억불 공여 서약
- ✓ 역대 최대 규모 기후재원 공약: UAE 300억불 Alterra Fund, 미국 GCF 30억불 공약 등 870억불 기후재원 공약 봇물



조흥식 COP28 정상회의 대통령 특사



■ COP28 의장국 및 주요국 이니셔티브

- ✓ **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** :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대,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(120여개국 참여)
- ✓ **저탄소 수소 상호인증 선언** : 수소 상호인증을 가능케 할 기술, 솔루션 개발
- ✓ **기후를 위한 망그로브 연합** : 흡수원인 망그로브 조림 및 복원 노력 가속화
- ✓ **기후를 위한 다층협력 연합** :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
- ✓ **기후와 보건 선언** : 보건 및 기후 연계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확대
- ✓ **기후, 구호, 회복 및 평화 선언** : 취약지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협력
- ✓ **식량과 기후선언** : 식량 안보 확보, 농업 및 식량 분야 지원 강화
- ✓ **넷제로 원자력 이니셔티브** :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대
- ✓ **기후클럽 공식 발족(독일주도)** : 산업부문 탈탄소 촉진 협력 강화
- ✓ **녹색해운목표 진전(미국)** : COP27 이후 진전, 무탄소 연료 및 친환경 선박 실증등

COP 28 주요결과 : 범지구적 점검(GST)

1. 배경

- 파리협정 14조 :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(**collective progress**) 점검
- 2023년 1차 Global Stocktake (GST) 실시, 그 이후 매 5년마다 점검
- 감축, 적응, 이행수단(재원, 기술, 능력배양 등)을 모두 포함
- 형평성(equity)과 과학(science)에 근거한 점검

2. 경과 : 1년반 이상 준비, 1차 GST로서 차기 GST의 이정표 기능

- 2022.6월~2023.6월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3회의 기술대화 개최
 - 2023.3월 IPCC 6차 보고서 발간, 과학적 근거 제공
 - 비공식 각료회의, 수석대표 회의, UNFCCC 산하기구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
 - GST 결과물의 형태, 내용, 핵심 메시지 등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 제안서 접수
 - 기술대화 종합보고서, GST 결과물 포함 요소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
 - 사전각료회의(Pre-COP: 10.30-31, 아부다비) 핵심 의제
- ※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의 성과 평가, 미진한 부분 확인, 향후 조치 합의**

3. GST 결과문서 주요내용 (UAE Consensus, 진통 끝에 탄생!!!)

1) 1.5도 목표 재확인 및 IPCC 6차 보고서 핵심 메시지의 포함

- 늦어도 2025년까지는 글로벌 배출 정점, 2030년 -43%, 2035년 -60% 감축 강조

2) 역대 COP중 가장 강력한 8개항 에너지 패키지 합의 (Para 28)

-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대, 에너지효율성 2배 개선
-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(Phase-down)
- 2050년까지 배출제로 에너지 시스템, 무탄소 및 저탄소 연료 달성 노력 강화
-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(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),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
-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개발(재생에너지, 원자력, CCUS, 저탄소 수소)
- 2030년까지 비이산화탄소, 특히 메탄배출 감축
- 저배출 및 무배출 차량 보급, 충전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송분야 배출 감소
- 에너지빈곤 또는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조속한 철폐(phasing-out)

3)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체제 강화

- 파리협정 13조에 따른 **격년투명성보고서(BTR) 2024년 제출**을 위해 각국의 준비작업 착수를 요청
- 글래스고 합의에 따른 **2035년 목표 NDC 2025년 제출 확인** (차기 NDC는 경제 전반, 모든 온실가스, 부문별 접근을 포함하고 1.5도 목표 부합하는 감축 타겟 설정을 격려)
- 의장국 트로이카(UAE, 아제르바이잔, 브라질) 설립, 차기 2035 NDC 목표 향상을 위한 '미션 1.5 로드맵' 출범
- 모든 재원의 흐름을 저탄소 발전 목표에 부합시키는 파리협정 2조1항©를 주목하고, 이를 위한 샤름엘셰이크 대화 지속

※ 파리협정 2.1(c) :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HG emission and climate-resilient development

- 차기 글로벌점검(2028년 예정) 준비작업은 2026년 개시

4) 글로벌적응목표 프레임워크 합의, GCF 2차보충(128억불) 손실과 피해 펀드 7억9,200만불, 적응펀드 1억8,700백만불, 최빈개도국펀드 1억7,900만불 서약

COP 28 평가

- 에너지 전환 요구 증대
 - 군소도서국그룹(AOSIS)등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퇴출(phase-out)이 강력 논의 되었으나, 사우디 등 산유국 반대로 transition away 수준으로 타협
 - 그러나, 역대 COP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 패키지 도출: 화석연료 종식 시대의 개시라는 UNFCCC 평가 (**beginning of the end of the fossil fuel era**)
- 재생에너지, 원자력, 수소, CCUS를 포함한 저탄소 기술개발 가속화 명시
 - 무탄소연합(CFA)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할 모멘텀 조성
- 대규모 자원 조성을 통해 의장국 리더십 발휘 및 선진-개도국간 신뢰 회복 시도
 - 손실과 피해 펀드 공약(UAE1억불, 독일 1억불, 이태리 1억유로, 영국 4,000만 파운드, 미국 1,750만불, 일본 천만불)
 - 미국의 GCF 30억불 서약, UAE의 300억불 펀드 설립 등 2024년 예정인 정량화된 신규자원(NCQG) 협상을 앞두고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친화 메시지
- 파리협약 6조는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협상 계속 중
 - 6.2조를 활용한 협력은 현상태에서도 충분히 개시 가능하다는 스위스 등 해석

■ 기후 이슈의 범위 확대 및 정치화

- 중국, 인도, 러시아를 중심으로 **선진국들의 일방조치(EU의 CBAM, 미국의 IRA 등)에 대한 비난 고조** : 결정문에 자의적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
- 중국, 인도, 이집트, 볼리비아, 이란 등 강성개도국 그룹(LMDC)의 탄소 식민주의 타파, 탄소예산에 따른 형평성 확보 주장 강경화
- 정의로운 전환, 형평성 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환경, 경제 이슈를 넘어 사회 이슈로 발전
- Gaza지구 즉각 휴전을 요청하는 국가들의 발언 등장
- 러시아 반대로 **2024년 COP29** 회의는 동유럽에서 EU 회원국이 아닌 **아제르바이잔 바쿠**에서 개최 결정 (**2025년 COP30 브라질 벨렘**)

■ 파리협정 MRV 체제를 활용한 기후행동목표 강화 및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를 위한 논의는 지속 예상

■ 선진국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파리협정 2조1항(C) 논의 지속에 따라 금융, 기업 등 민간부분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목 필요

■ COP 28 논의 한국에의 시사점

-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논의 대응 : 脫석탄, 脫석유·가스,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등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아젠다
 - ✓ 화석연료 사업 전반에 대한 우리 계획과 전략 정교화 필요
- 2030 NDC의 충실한 이행, 격년투명성보고서 및 2035년 NDC 준비 조속히 개시
 - ✓ 범 사회적 논의를 통해 just transition 구현 필요
- 파리협정 2조1항 C 논의 확대가 국내 정책, 금융 및 기업투자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비 필요
- 손실과 피해 펀드 등 대개도국 지원 확대, 글로벌 리더십 발휘 필요
- 날로 강력해지는 비정부 참여자(기업, 시민사회, 청년, 여성, 원주민 등)들의 이해관계 및 취약계층 보호를 정책 및 기업활동에 반영 필요

감사합니다.
Thank you!